인종갈등 구조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아메리칸 드림"

특 집 최근 미국의 반이민 무드를 계기로 본 이민실태

안 상 호
(한국일보 LA지사 부장대우)

11월 8일 실시되는 미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중 하나는 바로 이민이다.

캘리포니아는 요즘 좀 과장된 표현을 쓰면 이민과 반이민 문제로 들끓고 있다. 이민에 대한 입장에 따라 주지사와 연방상원의원등 고위공직자의 당락이 결정될 만큼 이 문제는 감정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다.

1백50만 한인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민감정이 이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일이다.

한국인들의 미국이민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이민의 실체, 이민이 가져 온 인종간의 역학구도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 국내문제의 발생, 전개과정, 해결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종문제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

이민과 인종문제는 단순히 미국내문제로 방치될 성격이 아니며 미국의 외사결정 과정과 파워그룹화한 각 인종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문화는 동화작용이 강하다. 모든 것을 재빨리 미국식으로 바꾸어 버린다. 작곡가 바하(Bach)도 미국에 오면 할 수 없이 이름이 바크가 된다. '우리식대로'는 북한보다는 미국의 구호라고 할 수 있다.

연변에서는 조선족 이민이 3대를 내려가도 한국말을 보존하는데 미국서는 당대에도 한국말 보존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미국의 대소수민족 정책이 그렇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한국말로 전파목 대입학력고사를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한국어를 보존계승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치있는 일이나 미국에서는 당위와 이념의 문제일 뿐이다.

낡은 표현이긴 하나 미국사회는 흔히 멜팅 팟(Melting pot)으로 불린다. 모든 것이 녹아서 하나가 되는 용광로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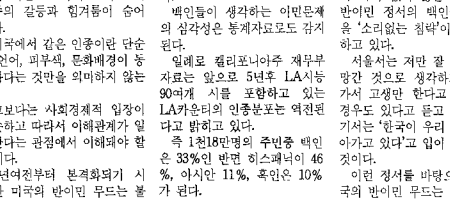
우리의 피부색과 사고방식, 문화와 언어, 사랑과 추억까지 녹아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완벽하게 행복할 것인가.

그러나 미국을 사는 어려움은 용광로 이론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민자의 대부분이 유럽인일 때 이 이론은 가능했다. 흰색일색이니까 색을 쉬기도 쉬웠을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판이하다.

대신 미국사회를 이야기 할 때는 샐러드 보울(Salad Bowl)이라는 말이 통용된다.

모여 살되 땅콩은 땅콩, 시금치는 시금치로 존재한다는 의미다. 서로 다른 독특한 맛과 색의 과일이 천화력있게 담겨진 점시는 보기에도 좋으리라는 뜻이다.



미국이란 접시에 담겨있는 인종은 크게 나누면 백인, 흑인, 아시아, 히스패닉으로 불리는 중남미계등 4종류이다.

미국사회의 문제를 한 껍질만 벗겨 내면 그 속에는 이를 네 인종의 갈등과 힘겨룸이 숨어 있다.

미국에서 갖은 인종이란 단순히 언어, 피부색, 문화배경이 동일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사회경제적 입장이 비슷하고 따라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관점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

1년여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미국의 반이민 무드는 불경기때마다 정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미국사회의 병리현상이다.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은 모두 이민자들에게 돌려지고 있다. 이민자들은 미국사회의 희생양이 되고 지난 82년 불경기때도 반이민 풍조는 만연했었다. 미국의 기득권 계층인 백인중 상당수는 지금 이민자가 너무 많고 좋은 대학에는 다 진학하고 있다. 이를 따라 잡으려면 백인들도 뜻볼을 놓고, 미적분 책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민자때문에 생활방식까지 바뀌고 있다는 불평은 그래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명문대로 진학한 한인학생들의 중도 탈락율이 어느 인종보다 높다는 사실까지는 그들이 알 리가 없다. 한국의 국민정서는 이민을 '도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 없지 않은 것 같으나 반이민 정서의 백인들은 이민을 '소리없는 침략'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서울서는 저만 잘 살려고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거나 괜히 가서 고생만 한다고 혀를 차는 경우도 있다고 들고 있으나 여기서는 '한국이 우리 땅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입이 부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정서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반이민 무드는 현재 캘리포니아등 전 미국에 큰 파문을 낳고 있다.

한인 이민자녀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미국경제가 회복되긴 해도 옛날 같지가 않아 반이민 정서는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제 시작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돼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반이민 움직임은 일명 SOS(Save Our State)로 불리는 주민발의안이다.

일차적으로 불법체류자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이민 조처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노인 이민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방차원의 반이민 움직임은 사회복지제도의 개정이다.

이른바 웰페어로 불리는 복지 프로그램의 개정은 한국노인들의 생활과 이민패턴도 바꿀 수 있는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SOS는 8일 중간선거에서 통과여부가 판가름나게 되나 웰페어 개혁은 클린턴행정부에 남겨진 주요 의제중 하나다.

클린턴은 지난 회기에 치안관계법을 기사회생시켜 가까스로 치명적인 정치력 손상을 막을 수 있었다. 최대의 정치적 숙제인 의료제도를 뜯어 고친 후 클린턴 행정부가 사회복지 개혁을 다음 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의 관측이다.

SOS라는 주민발의안과 웰페어 개혁을 반이민 SOS 법안은 기본적으로 히스패닉계, 특히 멕시코인들을 겨냥한 백인 보수주의자들의 칼날이다.(사진 TIMES)

'SOS법안' 통과시 인종차별 사회풍조 확실시
불경기되면 되풀이되는 사회병리 피해자들

개혁을 반이민이란 관점에서 살피는 것은 흥미있는 일일 것이다.

주민발의(Initiative)는 한국에는 없는 입법형태로 일정 수의 유권자가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회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직접민주제의 하나인 셈이다.

캘리포니아는 주민들의 서명으로 선거직 공무원의 목을 임기전에 날리는 주민소환(Recall)과 주민발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권자에 의한 선거혁명이 빈발할 소지가 더욱 높다.

앞서 말한 플리톤에서는 일마 전 주민소환으로 5명의 시의원중 3명이 쫓겨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보수파 유권자들이 주민발의라는 제도를 빌어 '혁명'을 꾀하고 있다.

프리포지션 187로 명명된 이 주민발의안의 주요내용은 불법체류자에게는 일체의 공립학교 교육, 응급시를 제외한 의료혜택,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말자는 것이다.

교사, 의료진, 사회복지국 공무원들에게는 직무상 만나는 사람의 법적 체류신분을 연방이민국에 보고토록 의무화하자는 것도 이 발의안의 주요내용이다.

스승에게 제자를, 간호사에게 환자를 고발토록 하자는 것은 미국인의 평균 윤리의식으로는 용납되지 않던 일들이다.

불법체류자에게 유치원-고교3학년에 이르는 13년의 의무교육 혜택을 박탈하면 당장 거리로 쫓겨나는 학생이 30만명 이상이라고 한다.

지난 82년 연방대법원은 같은 내용을 법제화했던 텍사스 주법을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고, 의료혜택 제공을 거부하면 전염성 질환이 들게 된다는 등 비판은 많이지 않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도, 리노 연방법무장관도, 바이즈너 이민국 최고책임자도, LA타임스도 유권자들에게 이 발의안에 반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다수의 백인 유권자들은 선거직전까지 친성태도가 요지부동임을 여론조사는 밝히고 있다.

SOS는 기존적으로 히스패닉계를 겨냥한 백인 보수주의자들의 칼날이다. 캘리포니아의 불법체류자는 히스패닉, 그중에서도 멕시코인이 대부분이다. 울타리만 넘으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연방이민국 자료에 잡힌 미국의 한인 불법체류자는 9백명에 불과하다. 서류상 이 발의안은 한인들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한인 불법체류자 수는 이보다 수십배는 더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발의안은 일부 재미한인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Sink Our State로 비난받고 있는 SOS가 통과될 경우 더 문제인 것은 백인 아닌 사람은 아무리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도 일단 불법체류자로 의심하는 인종차별적인 사회풍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미국서 살아와 이제 돌아갈 조국조차 없는 아시안 이민자도 피부색 하나 때문에 의혹의 눈초리속에서 살아야 한다. SOS는 잘려져 나간 성수대교처럼 미국사회를 두 동강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불법체류자 제재안이 아니다.

사회는 분열되고 타인종들 바라보는 서로의 눈초리는 다시 날카로워 지고 있다.

2만5천명의 주방위군은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요사태에 은밀히 대비하고 있다.

지난 2일 반SOS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 나온 LA일원의 중고생은 1만여명에 이르렀다.

투표결과는 미국시간으로 9일 새벽이면 밝혀지겠으나 반이민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발의안은 히스패닉 상대의 비즈니스가 적지 않은 남가주 한인사회를 다시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인 이민자들을 실질적인 의미에서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는 반이민 움직임은 지난해 연말께부터 잇달아 연방의회에 상정되고 있는 사회복지 개혁안이다.

연방정부는 여태껏 3년이상 미국에 거주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자격요건을 구비할 경우 한 사람에 매월 50만원 정도를 지급해왔다.

부부가 함께 이 혜택을 누리면 한 달에 90만원 정도가 돼 한인노인중 상당수는 이를 의지해 생활해 왔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와 연방의원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인니 시티의 반성적인 웰페어 의존자들과 함께 이민자들 개혁의 주요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미 전국에 2만3천명 정도로 집계된 한인 웰페어 수혜자중 절대다수는 이 혜택을 놓치게 될 공산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노인 아파트에서 노후를 보내던 한인노인부부가 아파트를 나와야 하는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인노인들 사이에 요즘 일고 있는 것이 시민권 붐이다. 웰페어 개혁의 칼날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인노인들은 연신 돋보기 안경을 밀어 올리며 시민권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기술의 現代 세계의 現代 HYUNDAI

남·녀 대졸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부문 · 인원 및 자격 2,200명

구 분	모 집 부 문	인 원	응 시 자 격
이공계	기계설계, 전기전자, 소재화학, 산업공학, 토목건축, 화학공학, 연구소(기계, 전자, 화학, 생명과학, 정보통신, 전자계산, 전기, 토목, 건축)	1,800명	● 공학 관련대학 졸업예정자 및 관련학과 졸업자 중 학사(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소지자 ● 1995년 2월 학사(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소지자 ● 남녀의 병역필필 여부는 무관함
인문 사회계	인문사회계 전학과	300명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2.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어 학 : 영어 · 한자 · 한문
● 일반 : 자기소개 서류 · 학자 · 전공(경영학 · 경제학 · 무역학 · 법학 · 행정학 · 정치학 중 택일)
나. 2차 : 인성 및 면접검사(1차 합격자에 한함)

3.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1994년 12월 4일(일) 오전11시
나. 장소 : ● 서울지역 접수자 : 1차 장 소 : 건국대학교(성동구 모진동)
2차장소 : 서울대 · 고려대 · 홍익대(동대문구 회기동)
● 울산지역 접수자 : 울산대학교(울산시 무거동)

4. 제출서류

입사지원서(붙임1) 소정양식 2통
※ 상세한 내용은 추후 입사지원자에게 안내문 배송이 있겠음.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일시 : 1994년 11월 3일(목) ~ 11월 11일(금) 매일 오전11시 ~ 오후 5시(공휴일은 접수함)
나. 지원서 교부 처 : 아래 교부처 접수란을 확인하십시오.
다. 지원서 접수처 : ● 서울 : 현대인력관리위원회(미원빌딩 현대종합금융회사 옆) 지하 1층 안내데스크
● 울산 : 현대중공업 인력개발실

6. 기타

가. 우리 입장는 동기우선으로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입주자는 주임 또는 만능통장 등이 우선부착 · 본인주소 기재하고 반드시 동봉하여 우송하십시오.
다. 영어 복수 공인자는 1994년 12월말 이전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라.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합니다.
마. 신체장애인의 경우 신청하면 장애 등급 심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바. 기타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 바랍니다.

1994년 11월

현대그룹 '95 직업 서비스제도 안내

1. PC를 통해 직업정보 수집 · 서비스
● 현대그룹 PC 통신 직업정보(HITEL)에 접속하여 직업정보 · 취업정보 이용하기
● 컴퓨터통신망 이용 입사지원 · 취업 · 채용 · 직업 서비스
2. 사이버 직업정보 서비스
● 인터넷 · 유닉스 · 서버스 접속 · 직업 · 취업 · 채용 · 직업 · 취업 · 채용 · 직업 · 취업 · 채용